

서울의 고령친화도시 추진 전략

2010. 5. 31. 제64호

김선자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목 차 >

요약

- I.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개발의 필요성
- II.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개발과 해외 사례
- III. 고령친화적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전략

요 약

시민의 고령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도시정책 필요

대부분의 시민은 노년기에 들어서도 오랫동안 살아왔던 거주지와 지역사회에서 계속 독립적이고 활동적으로 생활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기 이전에 설계된 도시환경은 이러한 시민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데 적절하지 않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신체적, 사회적인 취약성은 증가하지만 적절한 도움을 받으면서 익숙한 거주환경에서 삶의 계속성을 유지하는 것은,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비용 감소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때문에 최근의 고령화 정책에서는 ‘지역사회 계속거주’가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모델 개발이 시도되고 있다.

고령친화도시 시민 모두가 ‘평생’ 살아가기에 좋은 도시

고령친화적인 도시는 노인만을 위한 ‘노인친화적’ 도시가 아니라 시민 모두가 평생을 살아가기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나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변화하는 시민의 욕구와 선호에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고령친화 모델 지역으로 4개 지역이 선정되었으나 이 사업의 목적이 지역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어 주민의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또한, 적절한 예산 지원이 따르지 않아 실제적인 추진도 미흡하였다. 특히 지역개발의 목표 선정, 실행과정, 평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도 없고 의료·복지·고용·교통 등 기본영역에 대한 논의도 기초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고령친화도시의 모델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으며 적용을 확대하고 있는 국제보건기구(WHO)의 고령친화도시 모델과 미국의 평생지역사회 모델, 빌리지 모델, NORC 프로그램 모델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들이 시사하는 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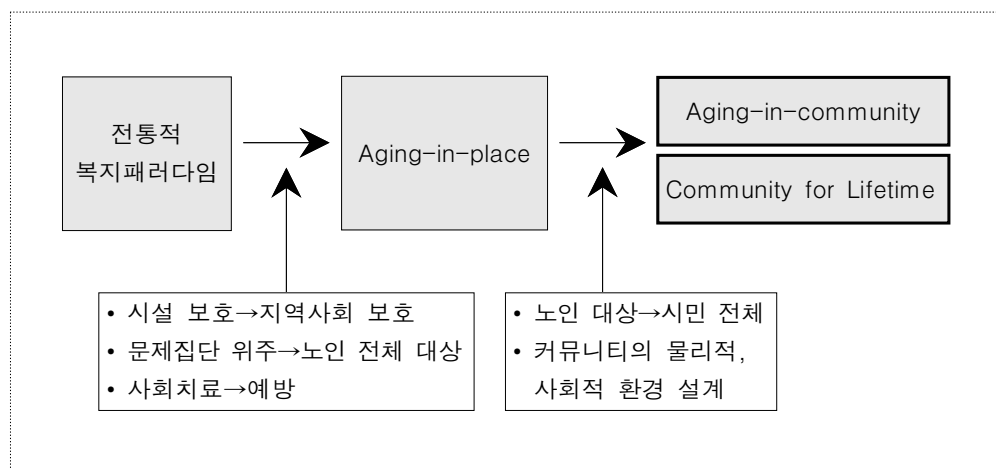
물리적·사회적 환경의 재정비와 재설계 필요

시민 전체가 안심하고 평생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서울의 물리적, 사회적인 도시환경 재정비와 재설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서울시의 전반적인 도시정책과 환경이 시민의 고령화에 대응하기에 얼마나 적합한지,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이 실시되어야 한다. 진단과 평가에 기초하여 지역사회 계속거주에 대한 시민의 요구 선호를 적절하게 지원하는 물리적 환경과 서비스 환경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노년기의 이동성과 접근성을 지원하는 교통계획과 공간계획의 재설계,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지원하는 다양한 유형의 주거대안을 개발하기 위한 전략 도출이 필요하다. 또한 시민의 생활공간에서 활동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행로, 공원, 산책로 등의 공간과 편의시설 확충, 노년기의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참여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I.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개발의 필요성

고령친화적인 지역사회는 활동적 노화의 기회를 제공

- 최근 고령화 정책은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in-community)의 개념을 중시
 - 노년기에도 활동성을 유지하며 지역사회에 거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지역의 중요한 역할
 - 노화에 따른 신체적·사회적 취약성이 증가하더라도 적절한 도움을 받으면서 오랫동안 거주해 온 지역에서 삶의 '계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개인적·사회적 차원에서 바람직하며 비용 측면에서도 효과적
 -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고령친화적인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
 - 기존의 '주거지에서의 계속거주'(Aging-in-place) 개념이 개별 주택 개조,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조한 반면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in-community)는 지역의 전체적인 구조와 설계를 강조



[그림 1] 고령화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 시민들이 평생 살기 좋은 고령친화적 사회의 기본 원칙

- 노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성을 인식하고 인정
- 지역사회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노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배려
- 노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선택과 결정을 존중
- 고령화와 관련한 욕구와 개인적인 선호에 대해 융통성 있게 대처

노인친화적 환경이 아닌 고령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표

□ 노인친화적(Elder-Friendly) 사회가 아닌 고령친화적(Aging-Friendly) 지역사회개발을 목표

- 고령친화적인 지역사회란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살기 좋은 지역사회'(Livable community for all age)를 의미
- 최근 지역사회 개발에서는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살기 좋은 지역사회'(Livable community for all ages)와, '평생을 위한 지역사회'(Community for lifetime)의 개념이 주목받기 시작
- 살기 좋은 지역사회란 물리적·사회적 환경 측면에서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회를 의미

□ 지역사회의 고령친화성에 대한 진단과 이에 기초한 지역환경의 재설계가 필요

- 고령친화적인 지역사회(Aging-Friendly Community)란 지역주민이 평생에 걸쳐 신체적·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 지역사회 주민이 평생을 살아가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고령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도시환경을 조성할 필요

우리의 문화와 실정에 적합한 고령친화 지역 개발 모델 필요

-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개발 모델의 부재
 - 2007년 충남 부여, 전북 순창, 경북 의성, 강원 원주 등 4개 지역이 고령친화 모델 지역으로 선정되어 시범사업을 추진
 - 그러나 고령화되고 있는 주민의 요구보다는 지역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어 주민의 실제 생활에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부적절
 - 정부의 예산 지원이 현실화되지 않아 실제적인 추진은 미흡
 - 지역개발의 목표, 과정, 평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 부재
 - 의료, 복지, 취업, 도시 인프라 등 기본영역에 대한 기초적인 수준의 논의를 넘어서지 못한 실정
- 도시정책 개발과 지역사회 개발의 실제적인 과정에서 주민의 고령화에 대한 고려가 미흡
 - 제한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와 '살고 싶은 지역 만들기' 시범사업은 고령친화적 지역 개발 모델을 제시하기에 미흡
 - 시민단체의 '마을 만들기'는 공동체 운동의 성격이며, 정부의 마을 만들기 사업은 물리적 시설 중심
 - 서구 선진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친화도시, 고령친화 지역사회 모델을 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적합한 고령친화 지역사회 모델을 개발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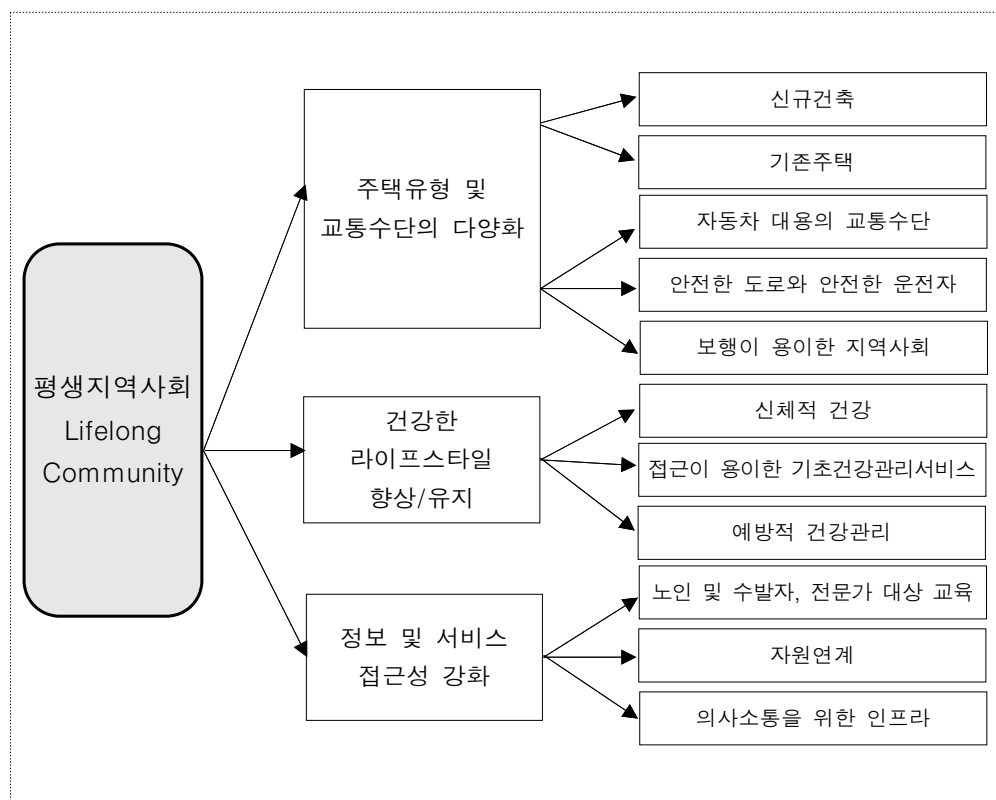
II.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개발 모델과 해외사례

다양한 유형의 고령친화적 모델 개발과 보급 활발

- 지역 차원의 고령친화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지역사회계획(communitiy planning) 모델과 지역개발(locality development) 모델로 구분
 - 지역사회계획 모델은 지방정부에서 주관하여 주민과 지역의 욕구를 조사하고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집행
 - 미국 애틀랜타시의 Aging Atlanta, 뉴욕시의 Age-friendly NYC, Advantage Initiative 등의 프로젝트가 지역 단위에서 추진 중
 - 지역사회 서비스 환경은 물론 물리적인 환경과 공간에 대한 재설계를 주요한 요소로 포함
 - 지역개발 모델은 보다 수직적인 접근방법으로 지역주민의 요구에 적합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 내 서비스 기관의 역량을 강화
 - 미국 보스턴시의 비컨힐빌리지, 미네소타주의 Vital Aging Network 등
- 고령친화 지역사회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면서 전국적 차원의 통합모델과 세계적인 정책기구 차원의 모델이 등장
 - 지역개발과 지역사회계획이 통합된 형태의 Livable Community 모델은 지역사회 개발의 구체적인 과정을 제시한 Blueprint for Action을 발간
 - 세계보건기구(WHO)의 고령친화도시 모델은 고령친화도시의 8개 기본영역을 제시하고 영역별로 충족되어야 할 사항을 점검표로 제시
 - 프로젝트 참여 도시가 증가하면서 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를 구성

미국 애틀랜타시의 평생지역사회 모델(Lifelong Community Model)

- 고령화되고 있는 시민의 요구에 적합하지 않은 도시환경의 종합적인 재설계와 전략을 수립
 - 평균수명이 짧고 노인 인구가 적을 때 계획된 도시설계는 젊고 건강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노화에 따른 지역주민의 욕구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데 부적합하다는 점에 주목
 - 평생지역사회 모델은 고령친화적인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기본요소로 물리적 환경(주거와 교통), 건강, 접근성의 세 가지 영역에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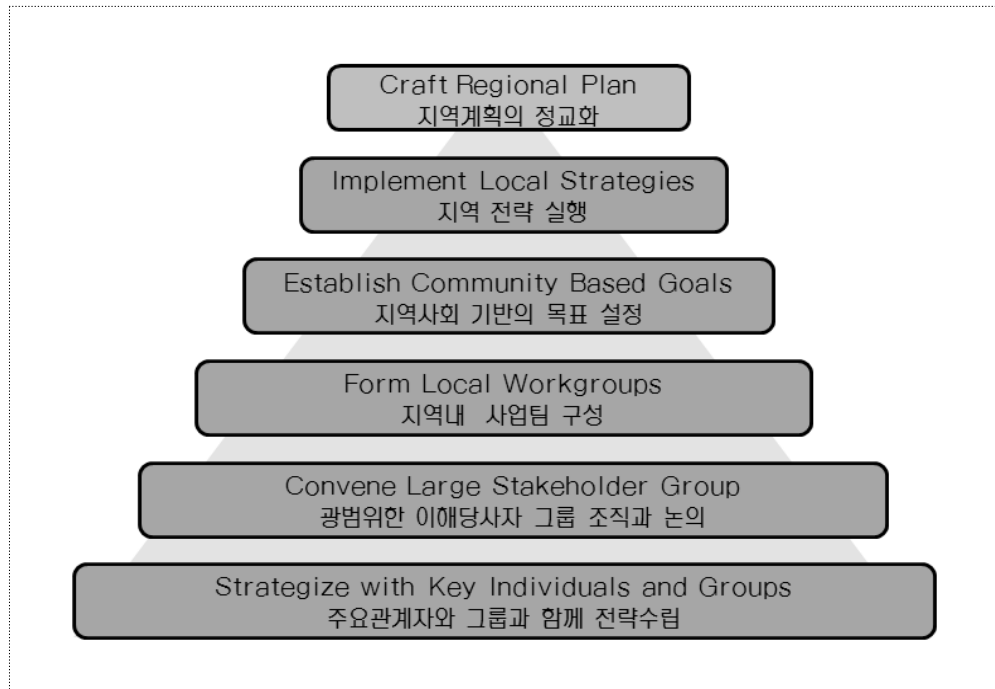
[그림 2] Lifelong Community 개발의 개념적 틀

□ 고령친화적인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주요 전략

- 시민의 요구와 선호 변화에 적절한 주거와 교통 옵션 제공
 - 토지 이용과 지역개발 과정 통합, 대안적 주거유형 및 서비스 개발, 노인 운전능력 향상, 대중교통 개선 등
-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유지
 - 예방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개선, 신체적 활동 기회 제공, 건강교육 등
- 서비스와 정보에의 접근성을 확대
 - 예방적인 정보 제공과 교육(지역사업체의 예비 은퇴자 대상의 교육 등)
 - 병원과 재활기관을 포함한 서비스 간의 연계 확대

□ 애틀랜타 지역위원회의 주도 아래 지역주민과 전문가 그룹이 적극 참여

- 애틀랜타 도시계획기관이며 지역노인국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애틀랜타 지역위원회(Atlanta Regional Commission)에서 주관
 - 보건, 도시계획, 교통, 의료, 건설, 경찰, 공원, 도서관, 법률 등 지역 내 모든 부문의 전문가와 연계
 - 지역이 가진 자원을 분석하고 주목해야 할 영역을 도출
- 애틀랜타 시내의 5개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실시된 도시개발프로젝트는 각 지역의 역사와 주민특성을 반영



[그림 3] 계획수립과 실행과정

□ 평생지역사회 핸드북 발간과 디자인 원칙 제시

-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고려해야 할 기본 요소를 이동성과 접근성, 주거, 사회적 관계,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서비스 접근성 등으로 구분
- 각 요소를 실현하기 위한 점검표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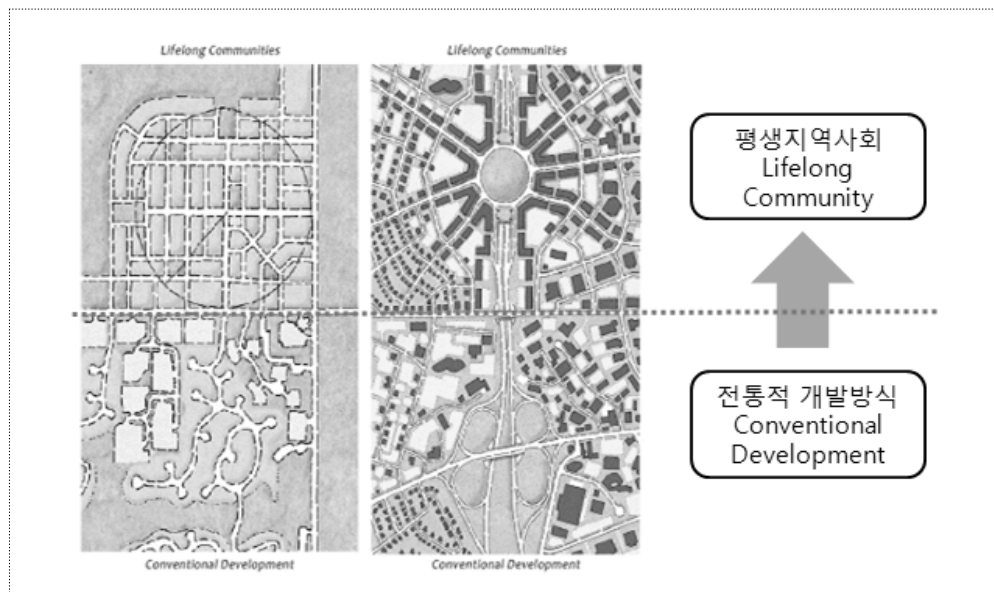
체크리스트 사례: 평생 건강한 생활(Lifelong Healthy Living) 분야

- 빌딩지표
 - 낙상을 방지하는 안전한 환경
- 지역사회지표
 - 노인에게 적합한 산책로 지정
 - 다양한 운동프로그램
 - 운동시설(수영장)
 - 지역사회 정보제공과 컨설팅
 - 근거리에서 건강한 먹거리 보장

- 평생 살기 좋은 지역사회 디자인을 위한 원칙을 구체화

평생지역사회를 위한 디자인 원칙

1. 다양한 이동수단을 통해 편리하게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의 연결성(connectivity) 보장
2. 걷기 좋고 안전한 거리환경과 다양한 이동수단 제공을 통한 보행자 접근성과 이동성 보장
3.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들이 집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위치(근접성)
4. 녹지공간, 지역사회센터, 공원 등 사회적 관계를 활성화 하는 공간 제공
5. 개인의 요구와 선호가 변화해도 지역 내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 옵션 제공
6. 신체적인 활동을 촉진하는 공간제공과 적절한 건강서비스 제공
7. 현재 거주민을 고려한 단계적 계획과 추진



[그림 4] 도시의 연결성(connectivity)을 개선한 Lifelong community 디자인

미국 뉴욕시의 고령친화도시 프로젝트(Age-Friendly NYC)

- 뉴욕시의 고령친화도시 프로젝트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고령친화도시 모델을 적용하여 발전시킨 사례에 해당

- 2007년 Bloomberg 시장이 뉴욕의대(New York Academy of Medicine)와 협력하여 프로젝트 추진
 - 타운홀 미팅, 포커스그룹, 뉴욕의 고령시민 심층인터뷰 등이 실시되고 뉴욕시 정책의 고령친화성에 대한 진단을 실시
- WHO가 제시한 프로젝트 과정에 따라 뉴욕시의 고령친화도를 진단하고 강점과 자원을 파악해, 나아가 뉴욕시 차원의 구체적인 핵심전략을 도출



[그림 5] WHO 고령친화도시 프로젝트의 개념적 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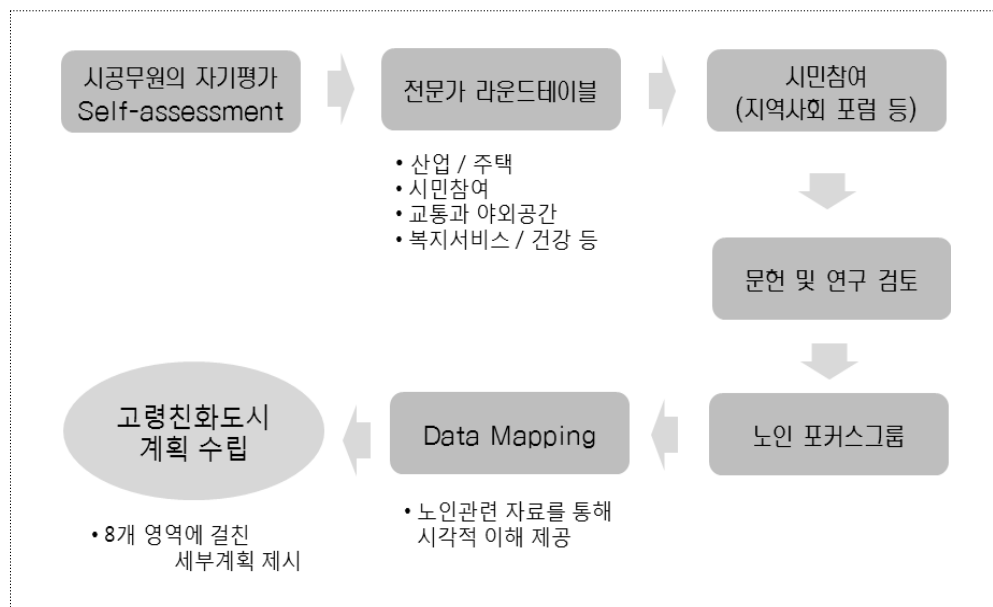
□ 뉴욕 프로젝트의 목표

- 시민들이 나이 들어가면서도 독립적이고 활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
- 노인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요구와 선호에 적절하게 대응

- 뉴욕의 도시계획과 시정부의 사업들이 뉴욕의 고령 시민의 생활양식과 선택에 적절히 대응하고 지원하도록 보장

□ 고령친화도시 실현을 위한 뉴욕시의 핵심전략

- 지역사회 및 시민의 참여, 주거, 공공 공간과 교통, 건강과 사회서비스를 4개 핵심 정책 영역으로 설정하고 핵심 전략을 제시



[그림 6] 뉴욕시의 고령친화도시 프로젝트 진행 과정

<표 1> Age-Freindly NYC 프로젝트의 주요 전략

대영역	세부영역	핵심전략
지역사회와 시민 참여	고용과 경제적인 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 직업훈련과 취업지원 - 노인유급일자리 확대 - Social Security 수급을 위한 고용기회 제공
	자원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 간 자원봉사와 학습 기회 제공 - 새로운 자원봉사 기회와 자원 제공(타임뱅크 등)
	문화 및 여가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니어센터와 도서관간의 파트너십 구축 - 시니어센터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술가 모집 - 문화/예술행사 노인 할인 혜택에 대한 원스톱정보 제공
	정보와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 중심의 새로운 NYC & Co. 웹사이트 구축 - 노인국(DFTA) 웹사이트 재설계와 정보수준 확대 - 지역사회 고령친화성 진단 - 노인서비스 제공자 대상의 문화적 역량강화 훈련 실시
주택	적정비용의 주거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주거지원금과 건설과정에서 노인의 고려 - 노인주택 건설시 주차규정과 zoning 규제 완화 - 주택 리모델링과 신규 건설을 위한 융자지원
	자가소유자와 임대거주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수리비 융자 지원 - 노인임대자보호(SCRIE)에의 접근성 향상 - 주거관련 법적지원
	지역사회 내의 자립생활 지원(Aging in Pla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발생적 노인거주지역(NORC)에 대한 지원 - 취약노인에 대한 주거지원(Section 8 바우처) 제공 확대 - 지역 내 계속거주를 지원하는 새로운 주거모델 개발
공공공간과 교통	교통의 접근성과 비용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역의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서비스 개선 - 특수이동서비스(Access-A-Ride)의 효율성 향상 - 대중교통이용이 불가능한 노인 대상의 택시바우처 개발
	안전하고 고령친화적인 공공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스정류장의 휴식시설(의자) 확충 - 주요 장소 내 공중화장실 확충 - 노인안전을 고려한 교차로 재설계 - 고령친화적 공원을 지정하여 노인이용 활성화
	미래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보호단 워크숍 제공과 노인의 식수(植樹) 참여 권장 - 노인의 이동성 향상을 위한 연구 -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확대
건강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건강 및 건강관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의 건강관련 인식과 지식 증진 - 건강 증진을 위한 시니어센터 재설계 - 휘트니스센터 할인 프로그램 - 건강보험옵션에 대한 인식 확대
	고위험군 노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상방지프로그램 실시 - 고위험군 노인 대상 에어컨 무료보급 - Silver Alert(실종노인홍보)를 Notify NYC에 추가 - 노인대상범죄예방을 위한 "Savvy Seniors" 캠페인 확대
	영양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푸드스탬프 전화신청 절차 실시와 아웃리치 캠페인 - NYC Green Cart 프로그램 실시 - 식료품 쇼핑시 버스서비스 제공 - 사례 관리와 가정배달급식프로그램의 효율성 증진
	수발 및 장기요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자녀 양육 조부모에 대한 상담과 지원서비스 제공 - 가족수발자에 대한 교육자료와 지원 확대 - 가족수발휴가(Family leave) 확대를 위한 정책 모색 - 지역사회 보호에 대한 접근성 개선 -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식개선과 교육
	완화 케어와 죽음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화치료 홍보 / 기존의 완화케어프로그램 확대 - 사전결정(advance directive) 홍보 - 의사결정 불가 노인의(건강 관련) 대리인 법제화 추진

미국과 호주의 빌리지 모델

- 빌리지 모델은 공간이 아닌 사회적 관계에 기초한 커뮤니티 개념을 강조
 - 물리적, 공간적인 마을(빌리지)이 아니라 거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회원제 '서비스 빌리지'의 개념
 - 오랫동안 거주해온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지역주민들이 빌리지를 구성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정
 - 서비스의 내용은 개별 빌리지마다 다양하나 기본적으로 정보와 서비스연계, 재가건강지원서비스, 이동서비스, 가사일 지원과 사회적 활동과 교육 등을 제공
 - 대부분 가입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150~500)로 운영되며, 회비는 신청서비스의 종류와 수준에 따라 결정
 - 일부 빌리지는 저소득층 회원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나 기부금으로 운영되기도 하며, 일부는 자원봉사나 회원들 간의 서비스 교환으로 운영
- 개인의 '삶'을 둘러싼 다양한 요구에 대한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고령친화지역사회를 조성
 - 빌리지의 개념은 노인의 의료적, 기능적, 정서적, 사회적, 종교적 요구 등 개인의 '생활'을 둘러싼 총체적인 지원에서 기원
 -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되어 현재 미국과 호주에서 50여 개의 빌리지가 운영되고 있으며 600여 개 이상의 빌리지가 시작단계
 - 최근에는 웹기반의 Village-to-Village Network를 구성하여 빌리지 운영과 관련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정보를 공유

- 빌리지 모델의 다양한 시사점
 - 시설입소를 가능한 늦추거나 예방하는 효과
 - 자원봉사 참여를 늘리고 노년기의 고립을 예방하며 빌리지 구성원 간의 커뮤니티 의식을 고양
 - 비컨힐 빌리지 등 성공사례를 통해 빌리지 모델이 지속가능한 (sustainable) 모델임을 입증

미국 보스톤시의 비컨힐 빌리지 사례

- 가입자격: 비컨힐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50세 이상 성인
- 연간회비: 개인 \$600, 가구 \$890
연소득 \$45,000 이하 60세 이상 노인 \$100(가구당 \$150)
- 서비스 내용
 - Wellness 서비스: 운동(exercise class), 지역 건강센터 이용과 개인 트레이너 할인 등
 - 재가 건강 보호: 재가 건강 관리 서비스 할인, 건강관련 세미나
 - 이동: 쇼핑, 병원방문, 교통서비스 제공, 택시 할인
 - 가사일 지원: 가정 내 수리와 개조(전구교환, 가구수리 등), 청소, 요리, 컴퓨터 관련 지원, 고지서 납부와 세금계산 등
 - 여가 문화 활동: 박물관, 아트쇼 등 투어, 명사와의 만남, 교육, 동호회 등

자연발생적 은퇴자 커뮤니티(NORC) 프로그램 모델

□ NORC 프로그램 모델의 기본개념

- 자연발생적 은퇴자 커뮤니티(Naturally Occurred Retirement Community, NORC)란, 계획되지 않았으나 자연발생적으로 다수의 노인이 거주하게 된 지역으로 거주민의 고령화가 점차적으로 진행되어 발생
- 미국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NORC의 숫자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제시가 시급한 과제

- 1985년 뉴욕시에서 정부지원 사업으로 최초로 실시된 NORC 프로그램은 현재 25개로 실시 확대
- NORC 프로그램 모델은 지역 내 서비스 자원을 재구성하고 전달체계를 효율화함으로써 거주민들의 시설 이주를 방지하거나 연기시키고 지역 내 계속거주를 보장

□ NORC 프로그램 모델의 주요내용

- NORC 프로그램 모델의 기본목표는 aging in place, 즉 노인 거주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최대화함으로써 자신의 주거지에서 계속해서 독립적이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거주민과 지역사회간의 연결을 강화시키는 예방적 접근
- 지역 내 공공 및 민간자원과의 복합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
- 사례 관리, 건강 관리, 교육·여가활동, 이동서비스, 자원봉사 등의 서비스가 거주노인과 지역사회의 필요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제공되는 것이 특징
- 지역사회가 가진 강점과 약점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설계
- 기본적으로 노인의 지역사회 참여 증진, 노인 개인 및 가족 대상의 복지 지원서비스, 건강서비스를 통합한 형태로 프로그램을 설계

Ⅲ. 고령친화적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전략

시민 모두가 평생 살기 좋은 서울의 도시환경 구현

- ☐ 전반적인 도시정책과 도시환경을 재정비하고 효과적인 전략을 도출
 -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기 이전에 설계된 서울시의 사회적, 물리적 환경은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시민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기에 미흡
 - 생애단계 전반에 걸쳐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 목표
 - 시민 전체가 안심하고 나이 들어가면서 평생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서울의 도시환경을 재정비하고 재설계할 필요
 - 서울시의 고령친화성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기초로 하여 적합한 고령친화도시 모델 개발과 전략 도출이 필요
 -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가능하게 하는 주거, 교통, 서비스 대안을 개발
 - 시민들이 활동적이고 건강한 생활양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기반을 조성
- ☐ 주요 추진전략

주요과제	추진전략
서울시 도시정책과 도시환경의 고령친화성 진단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정책 전반에 걸친 고령친화성 진단 - 서울형 고령친화 지역사회 모델과 가이드라인 개발 - 고령친화적 마을 만들기 시범사업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지원하는 물리적·사회적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하고 융통성 있는 주거옵션 개발과 보급 - 이동성과 접근성 보장하기 위한 도시환경 재정비 - 활동성을 유지시키는 도시디자인과 설계 실현 - 건강관리와 예방프로그램 확대

서울시 도시정책과 도시환경의 고령친화성 진단 실시

- 서울시의 도시정책과 도시환경의 고령친화도에 대한 진단 필요
 - 도시정책 전반에 걸친 전문가와 공무원 및 관련 실무자들의 고령친화 정책 평가는 고령친화도시 서울 만들기를 위한 출발점
 - 복지, 보건정책은 물론 산업, 도시계획, 교통, 주거, 환경 분야의 주요 정책과 사업, 그리고 정책 결정과 추진과정에서의 고령친화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할 필요
 - 성별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등을 참고한 평가기준 개발
- 서울형 고령친화도시모델 개발과 가이드라인 개발
 - 서울시 차원과 자치구 단위 또는 동단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고령친화 지역사회 모델 개발 필요
 - 서울시와 서울시민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자원이 최대한 활용되고, 약점과 장애요인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개발
 - 고령친화도 진단과 전략개발을 위한 지침서와 점검표, 전략 도출에 필요한 세부자료 등 기술적인 지원 제공

평생 살기 좋은 지역사회(Lifetime Community)조성을 위한 기본영역의 예

- | | |
|-----------------------|-------------------|
| • 주거·사회참여 | • 취업과 소득활동 |
| • 취약노인에 대한 보호 | • 여가/평생교육 |
| • 이동 및 교통 | • 건강 및 사회서비스 |
| • 물리적 공간의 재설계 | • IT 및 최신과학기술의 활용 |
| • 지역시설과 기관 등 지역자원의 활용 | |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지원하는 물리적·사회적 인프라 구축

- 다양한 주거유형과 지원서비스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지원
 -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으면서 계속거주(assisted living)를 가능하게 하는 주거유형과 서비스의 개발 및 도입이 시급
 - 현재 대부분의 노인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장기요양서비스와 시설뿐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매우 제한적
 - 주택 개조와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확대를 위한 지원이 필요
 - 지역의 공공 및 민간자원의 활용을 최대화하고 지역자원 간의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서비스 활용의 효율성 증대
 - 자치구 단위의 노인지원서비스 연계 시범사업을 실시
- 안전하고 편리하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
 - 노인의 신체적 기능 변화를 고려한 보행환경으로 개선
 - 보도 노면 관리, 횡단보도 설계와 신호체계, 조명 등을 재정비
 - 노인보행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동휠체어 전용도로 설치 확대
 - 노인 대상의 특별이동서비스 도입 검토
 - 자원봉사를 활용한 노인이동서비스 활성화
 - 노인 운전자를 고려한 도로 설계와 표지판 재정비
 - 편의시설 및 교통서비스에 대한 정보 접근성 향상
- 시민이 생애 전반에 걸쳐 활동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평생을 살아가는 동네'(lifetime neighborhood) 조성을 위한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 설계

- 신체적 활동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증진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
 - 고령친화 공원, 산책로와 녹지공간 조성, 공원과 주요 공공장소 내의 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
 - 지역의 보행편의성(walkability) 진단
 - 특정 지역의 보행편의성에 대한 웹기반의 진단과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www.walkscore.com) 참조
 - 자원봉사, 평생교육 등 사회적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세대 간 사회통합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공간적 환경 마련
 - 학교, 사업체, 동호회 등의 지역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활동프로그램 개발
-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예방 차원의 건강지원 서비스 확대
- 지역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노인스포츠 바우처 도입 검토
 - 현재 지역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 노인할인을 적용
 -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성인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 만성질환 관리, 영양 관리, 맞춤형 건강생활 컨설팅, 낙상방지 프로그램, 조기진단 등 현재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지역보건사업을 확대 실시

김선자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02-2149-1277

sunjakm@sdi.re.kr